

건축사진의 숨겨진 순간

Hidden moment
in architectural photographs

디지털 사진의 시대로 바뀐 지 오래다. 디지털카메라나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릴 수 있다. 거추장스러운 삼각대 없이도 가볍게 실내공간을 촬영하고, 다양한 각도로 수많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매체도 다양화되어 건축사들이 잡지 등의 매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본인의 작업을 소개할 수도 있다. 사진은 이제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찍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게 됐다. 사진가들의 설자리가 줄어들어는 듯했다.

2006년경부터 디지털 장비가 점차 좋아지면서 대형 뷰(view)카메라에 대형 필름을 고수하던 우리 건축사진가들도 대부분 디지털로 전환했다. 건축사진가들은 디지털에 적응하고, 필름 카메라 시절에 아쉬웠던 부분들을 보완해 가며 디지털의 장점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필름을 사용하던 시절이나 지금이나 실제 촬영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은 거의 같다. 삼각대도 그대로다. 다만 작업을 마치고 현상소에 가지 않을 뿐, 모두 각자의 작업실에서 후반작업을 하고 있다. 건축물을 멋진 사진의 대상으로만이 아닌 설계자의 의도가 드러나고 건축의 본



A형 사다리는 삼각대의 좋은 연장선이 된다.(국립의산박물관/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질이 빛날 수 있게 공간에 집중하는 건축사진가의 노력은 한결같다. 그래서인지, 근래 들어 전문건축사진의 수요가 오히려 늘어나서, 서울·경기에 집중되던 과거와 달리 사진의뢰가 지역의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에 이르기까지 점차 확대되고, 건축사진을 필요로 하는 수요층도 다양해지는 추세다.

건축사진

건축사진은 하나의 건물에서부터 도시에 이르기까지 건축물을 대상으로 촬영한 사진을 말한다. 건축사진을 업으로 하는 전문건축사진가는 주로 건축디자인을 전달하는 목적으로 사진을 촬영한다. 예술을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대개 건축사사무소, 건설회사, 건축자재회사 등 건축 관련 업체로부터 상업적인 의뢰를 받는다.

사진촬영에 앞서

우선, 처음으로 사진 작업을 함께 하는 경우 저작권 협의를 시작한다. 요즘은 저작권 문제로 인해 민감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사전에 상세한 저작권 및 이용 조건을 설명하고 확인한다. 좋은 결과물을 만드는 시작점은 서로의 권리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된다.

서터를 누르기에 앞서, 건축물에 대한 이해가 가장 우선이다. 먼저 사진촬영 대상 건축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다. 건축물의 개요와 도면 등 기본 자료를 받고, 설계 개념, 의도,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에피소드



주변의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원하는 높이를 맞춘다.(안성스타필드/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글. 윤준환
Yoon, Joonhwan
건축사진가



삼각대는 낮이나 밤이나 정교한 프레임링을 위한 건축사진의 필수.(기장문동리카페/가가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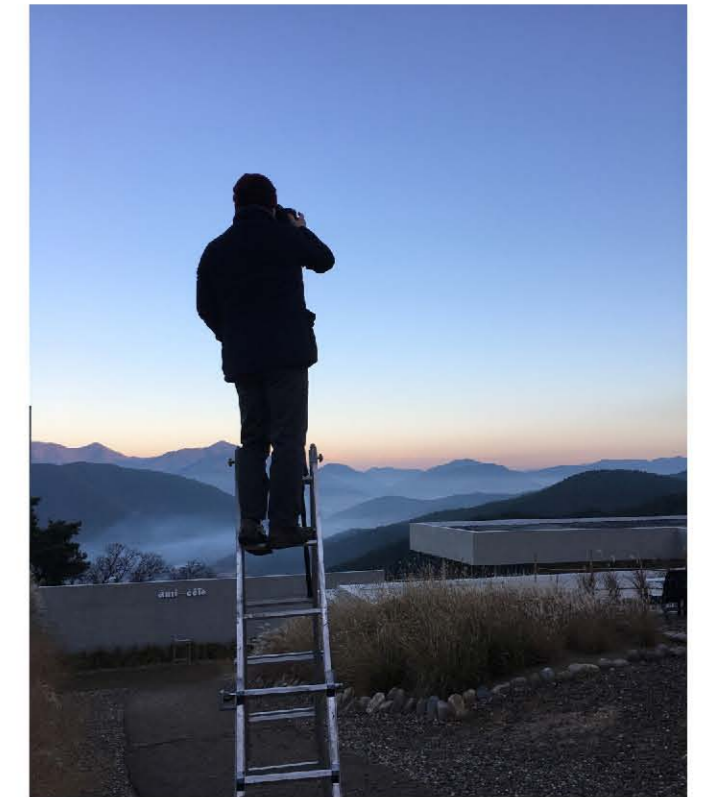
를 듣거나 배치도, 평면도, 투시도 등을 보면서 설계 과정에서 상상했던 장면을 설명 듣고 촬영하게 될 뷰(view)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몇 달, 몇 년을 공들인 결과물을 잘 찍어달라는 한 마디로 의뢰하기보다는, 건축사진가와 파트너로서 공간을 공감하고 애정을 가져야 좋은 건축사진이 나올 수 있다.

다음으로 촬영 시기에 대해 협의한다. 건축물이 완성될 즈음, 설계 단계에서 상상했던 이미지와 현상이 일치하는지 비교한다. 현장의 여러 변수에 의해 이미지가 잘 부합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긴다. 건축사의 의도된 공간이 본질적으로 변형, 훼손되기 전에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무조건 준공 전 또는 준공 직후라든지 어떤 시기가 가장 좋다고보다는, 많은 변수를 고려할 수 있는 건축물의 통제 역량(건축물 출입, 창문 개폐, 야간 조명 점등, 주차차량 이동, 현장 정리 등)과 섭외(촬영 허가, 임대세대의 협조 등)에 관계된 요소들이 촬영 시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



크레인을 이용한 고공촬영(50m 이하)은 드론이 할 수 없는 야경촬영이 가능하다.

최근 어느 지식산업센터 촬영의 경우 건축사는 건물 앞 조경의 녹음이 풍부한 사진을 원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겨울에 심어진 나무들은 가지만 앙상했고, 온전히 자리 잡고 녹음이 풍부해지려면 2년은 걸릴 듯했다. 또한 대다수의 지식산업센터는 사용자가 들어오면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다. 커튼월 내부의 현란한 시트 광고라든지, 짐이 잔뜩 쌓여있기도 하고, 로비에는 각종 광고배너가 즐비하다. 이 또한 사용자의 모습으로 담고자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 이런 경우 건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준공 직후에 1차 촬영을 하고, 건축사가 원했던 조건과 어우러지는 장면은 2년 후쯤 2차 촬영을 하기로



새벽의 어머를 이용한 야경촬영. 다만, 박명시간 이전부터 모든 준비가 되어야 한다.(청도근생/피엘에스건축사사무소)



이미 사용이 시작된 백화점의 내부. (스타필드 하남/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촬영할 때 모델을 자주 등장시키는 편이다. 건축사이거나 직원이거나 집주인이 모델이 될 수도 있다. (경주속박시설/리올도량건축사사무소)



탄화 동판 1,549장의 시간에 따른 변화. (동네가게녹스/은건축사사무소)



했다. 사용자를 통제하기 힘든 임대건물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얻기까지의 과정은 쉽지 않다.

반대로 도심 대로변의 오피스 빌딩은 가로수에 가려져 있다. 풍성한 잎 덕분에 입면은 대부분 보이지 않는다. 의도한 입면에 가로수가 들어가야 한다면 모를까, 입면에 변동 사항이 없다면 늦가을까지 타이밍을 기다려 촬영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 대형 백화점이나 쇼핑몰은 또 다르다. 이미 사용이 시작된 후에 촬영해야 상업시설의 느낌이 난다. 또 내·외부의 공간과 설치물도 대부분 정리되어 있다. 이런 경우 고객들이 적당히 있는 이른 오전 시간에 내부공간이 주로 촬영되고, 배치된 방향(向)에 따라 내·외부를 오가며 야경까지 작업이 이루어진다.

주택의 경우도 상황은 제각각이다. 공간과 어울리는 가구가 세팅된 상황에서 클라이언트가 모델도 되어주는 촬영이 되면 좋겠지만(클라이언트에게 어떤 가구를 들여올지 건축사에게 사전 문의할 것을 부탁한다),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입주 전에 촬영한다. 시기를 놓치는 경우, 건축사사무소 직원들이 동원되어 가구를 옮겨가며 촬영하는 경우도 있다.

공동주택이 겨울에 준공되었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 촬영 일정을 다음 해로 연기할 것을 제안한다. 일단 태양의 고도가 낮아 그림자 간섭이 심하고, 조경은 메말라 있으며, 연못 같은 수(水)공간에는 물이 없다. 다음 해 5월이나 되어야 태양의 고도가 높아지고, 조경도 푸르며, 수공간에도 물이 담기기 시작한다. 삭막한 계절의 주거공간보다는 빛과 녹음이 어우러지는 주거공간의 모습으로 기억되는 것이 공동주택 설계자의 바람이 아닐까 싶다.

가끔은 의도하여 건축물의 초기모습부터 변화된 모습을 담는 작업도 있다. 탄화 동판 1,500장이 외장에 붙여진 지역 구도심의 작은 근린생활시설인데, 두들긴 동판에 열을 가해 산화속도를 달리하여 시간에 따른 동판의 색변화를 드러내는 것이 건축사의 의도였다. 이 작업은 2년 전에 시작했지만, 외부전경 촬영은 아직 진행 중이다.

“몇 시에 건물을 찍으면 좋은가요?”, “언제 건물을 찍으면 좋은가요?”라는 질문을 종종 받곤 한다. 건축물을 촬영하는 정해진 시간은 없다. 나의 시간에 맞추어 건축 사진을 찍을 수 없다. 일반 관광이나 답사처럼 정해진 경로나 여유시간에 맞춰 건축물에 도착하면 역광의 입면이나 빛이 없는 공간을 접할 수 있기에, 내 시간에 맞추기보다 건축물이 가진 환경에 맞는 시기와 순간에 맞추어 움직여야 한다.

공간은 시간이 적층되어 만들어진다고 본다. 설계의 시간, 시공의 시간, 땅의 시간, 빛의 시간... 수많은 순간이 층층이 쌓여 공간이 된다.

건축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건축사에게는 준공된 건축프로젝트의 정리 작업이 되고, 건축사진가에게는 건축의 숨겨진 순간을 담는 새로운 시작이 된다.



윤준환 건축사진가·Urban Record 대표

동아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했다. 도시건축사진공모전(2001) 대상 수상, 한국건축사진가회 주최 워크숍(2001)을 거쳐 건축사진가로 활동 중이다. 대형 건축사사무소부터 지역의 이틀리에까지 많은 건축사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부산광역시와 변화하는 도시와 건축을 기록하는 '부산도시기록(2009~2010)', 미군기지였던 캠프하리아리 시민공원 조성과정(2011~2014)의 기록 작업을 했다. 또 스페인 바르셀로나시정과 가우디 연구재단의 도움으로 바르셀로나의 가우디 건축물 13개를 촬영, 부산국제건축문화제 특별전 '가우디와 바르셀로나를 걷다(2013)', 예술의 전당 '안토니 가우디전(2015)'에서 전시한 바 있다. 현재 건축사진스튜디오 'Urban Record'의 대표이자 한국건축사진가회 회장으로, 월간 <SPACE> 전속 건축사진가로 활동 중이다.

ubrecord@gmail.com · www.instagram.com/yoon_joonhwan